

서민대출 시장 지형 바뀌고 있다

시행령 따라 대부업체 금리 잇달아 낮춰...고리 빚 '환승' 줄이어

대부업체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부터 발표되고 환승론(loan)이 자리를 잡으면서 서민대출 시장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법적으로 최고금리를 규제하는 데다 서민대출시장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서민금융사들이 대출 최고금리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다만 상당수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지하로 잠적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중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대형 업체들은 대부업체법 시행령 개정안의 발표에 맞춰 최고 이자율을 기존 연 66%에서 49%로 하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형 대부업체인 리드코프는 인터넷대출상품 최고금리를 기존 연 64%에서 49%로 7월말에 이미 하향조정했다. 러시엔캐시는 9월1일자로 러시엔캐시·아프로소비자금융·해피레이디 등 6개 계열회사를 러시엔캐시로 통합하고 최고금리를 연 54.8%에서 48.5%로 낮출 계획이다.

러시엔캐시는 중장기적으로 대출금

리를 추가 인하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여타 대형사들은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인 대부업체법 시행령이 통과되는 즉시 최고대출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조달금리가 높은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라는 합법적인 영역을 탈출, 지하로 잠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대부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철회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2에 달했다.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를 49% 수준으로 낮추면서 저축은행들과 캐피탈사들은 최고금리를 기존 49~54%에서 38~39%선으로 낮추는 분위기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대출 최고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 연 6.5~39.9%로 운영중이다. 인터넷 전용 신용대출 상품에는 적용금리를 연 9.99~21.99%로 설정했다. 대우캐피탈도 대출금리를 10%포인트 낮춰 7~39.9%로 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솔로몬저축은행이 개인신용대출금리를 연 8~39%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6.5~38.9%로 최근 낮췄다. /연합뉴스



‘피오레 펠리스타운’ 모델하우스 오픈 30일 광주시 남구 봉선지구에 문을 연 ‘피오레 펠리스타운’ 모델하우스에는 1천여명의 수요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펠리스타운’은 광주 최초의 호텔형 아파트로, 하우스카핑과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 상장사 돈벌어 이자값기 ‘급급’

1,000원 영업 이익에 571원 이자로 상환 광주 신세계·동아 에스텍 무차입 경영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은 1천원을 벌어 이 가운데 571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지역 상장법인 22개사의 올 상반기 ‘이자보상배율’은 1.75배로 전년 동기대비 0.2배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영업이익의 1천원 중 이자를 갚는데 571원을 사용한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채무상환능력이 좋다는 의미이며 1이하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역 상장사들의 이자보상배율은 전국 상장사 평균 6.05배보다 4.30배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1천원을 벌어 165원을 지출하는 전국 상장사 평균보다 406원이나 더 많이 이자비용을 내는 셈이다.

지역 상장사들의 이자보상배율이 감소한 원인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인수과정에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이자비용이 356억원이

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2개사를 제외한 지역 상장사의 이자보상배율은 4.76배로 영업이익의 1천원중 210원이 이자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자보상배율 상위 5개사는 화천기공(32.51), 서산(18.52), 성원파이프(18.31), 부국철강(14.33), 셀렌(10.15)순이었으며 이자비용이 없는 무차입 경영을 하는 회사는 광주신세계와 동아에스텍 등 2개사였다.

그러나 이자보상배율 1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도 대우디젤(-3.29), 행남자기(-2.84), 파루(-0.95), 고려시멘트(-0.39), 디지털텍(-0.32), 엠앤에스(0.03), 폴리플러스(0.07), 로케트전기(0.69) 등 8개사가 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소점포 카드수수료 33% 준다

금융당국, 가맹점 수수료를 1%P 인하 권고

전국 80만개에 달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간이과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33% 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 체크카드의 사용 범위가 예금·적금·펀드·주식·복권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종합 개

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원가산정을 위한 기본 원칙·기준·절차 등이 포함된 원가산정 표준안을 제시하고 카드사들은 이를 이용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가 일정 수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세가맹점(연간 매출액 4천 800만원 미만인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약 1%포인트 수준의 수수료를 인하를 권고할 계획이다.

영세가맹점의 평균 수수료가 3% 정도임을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은 33%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원가산정표준안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각 카드사의 현황도 달라 가맹점에 따른 편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은행 예금금리 6년만에 최고

7월 금리 평균 4.97% 주택대출금리도 상승

은행들이 증시와 증권사 자산관리 계좌(CMA)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수신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가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도 시장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 3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연 4.97%로 전달보다

0.10%포인트 올라 2001년 8월(연 5.18%)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는 전달보다 각각 0.07%포인트, 0.19%포인트 상승한 연 4.88%와 4.11%를 나타냈다.

또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고금리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면서 시장형 금융상품인 CD금리는 전달보다 0.12%포인트 상승한 연 5.0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 5% 이상의 이자를 받는 예금비중은 전달의 50.5%에서 54.0%로 늘어나 2001년 9월(55.6%)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지방 소비자 보호 나선다

공정위 시도별 전문가협 구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정보도 부족한 지방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선다.

공정위는 30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종합적인 지방소비자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지자체와 지방의회, 지방소비자단체, 지방상공회의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도별 소비자문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관련조례의 제·개정이나 분쟁 조정 문제 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중 소비자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시군구가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 소비자조례 제정과 실질적인 집행력을 도려 2010년까지 모든 시군구가 소비자조례를 갖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부산과 광주, 대전, 대구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 설치를 지원해 지방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비교소비자정보를 늘려 전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내년부터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구축해 표시광고나 약관 부분의 심결례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브프라임 사태 실물 경기 영향

美 성장 1%P 낮아지면 韓은 0.5%P↓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장기화돼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의 시차를 두고 0.5~0.6%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로 금융분야의 충격이 국내 실물경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30일 발표한 ‘최근 국제금융 불안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KIET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프라임 모기지까지 전이될 경우 미국의 내수가 침체에 빠지면서 수출을 매개로 국내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내수침체가 1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의류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규모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5~0.6%포인트 가량 낮추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기쁨과 흥분함으로 원성되는 엔틱의 명품

모디워갤러리 秋 특가판매

모디워갤러리 오픈 기념 특가판매

모디워갤러리 300-1 금호아트 빌딩 301호

모디워갤러리 300-1 금호아트 빌딩 301호

누구나 선택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당신을 고품격 동 최고의 VIP로 모십니다

모디워갤러리 오픈 기념 특가판매

모디워갤러리 300-1 금호아트 빌딩 301호

모디워갤러리 300-1 금호아트 빌딩 301호

34v48